

2025
중3-1 국어
미래엔

2025 중3-1 국어 미래엔 | 1(1) 상처가 더 꽂이다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상처가 더 꽂이다」의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로도 출제되고, 시의 구절과 유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다른 작품의 구절을 묻는 문제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⑦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
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籍)으로 보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
랴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 상처야말로 더 꽂인 것을.
- 「상처가 더 꽂이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는 ‘구경꾼들’과 ‘고목’을 바라보고 있다.
- ② ㉡: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 대상의 내면세계를 추측하여 열거하고 있다.
- ④ ㉣: 화자가 ‘어린 매화’의 의연함을 예찬하고 있다.
- ⑤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 ㉣과 같은 표현 방법이 나타난 것은?

- ①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 ②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③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 ④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 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3.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어구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상처의 향기가 강렬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의 비장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고목’과 ‘구경꾼들’의 태도를 대조하여 대상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다.

4. 윗글의 시인이 느낀 심미적 인식과 그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의 제목과 마지막 행을 유사하게 하여 주제의 식을 강조하였다.
- ②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심미적 인식을 강조하였다.
- ③ 화자를 직접적으로 등장시켜 시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 ④ 「고목」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여 상처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 ⑤ 시인은 상처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성숙해질 수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신유형

「상처가 더 꽃이다」의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 외에는 주제 의식과 관련한 문제, 「사립 학교 자리, 시새움과 책전이 키운 아이들」의 서술상 특징과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 ❶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다른 것은?

- ① 찬란한 슬픔의 봄
- ②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 ③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④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 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A]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등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협상
[B] 굿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
 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종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籍)으로 보이는가
[C]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인 것을.
 - 「상처가 더 꽃이다」

6.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를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일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⑤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7.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구경꾼들은 꽃이 한창 지고 있는 고목이 아닌, 꽃이 한창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에 주목하고 있다.
- ② [B]에서 구경꾼들은 고목의 상처가 현재에만 잠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 다행스러워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구경꾼들을 '사군자'라 지칭하며 상처와 고통을 이겨낸 그들의 내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C]에서 화자는 구경꾼들이 고목 앞에서 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C]에서 구경꾼들은 '꽃'을 '훈장'과 '부적'으로 인식하며 고통을 꽃으로 피워낸 고목에 감탄하고 있다.

8. '고목'에서 연상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끈끈한 태도
- ② 과거의 상처를 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 ③ 다른 사람들과 서로 배려하며 조화롭게 사는 태도
- ④ 부당한 현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태도
- ⑤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9. 다음은 윗글에 관한 생각을 담은 블로그이다. 이에 대한 댓글을 단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상처아발로 더 꽂인 것을,
- 유안진, '상처가 더 꽃이다'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훈장이든지, 부적이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다면 그것을 극복한 성숙 또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나 봅니다.
이 시를 읽으니 밸레리나 강수진과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이 떠오릅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들의 발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 Gangsojin's foot ▲ Park Ji-sul's foot

- ① 상처는 고통. 하지만 상처가 주는 교훈이 있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 ② 백년도 못 사는 사람이 사백 년이나 된 매화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이 시인의 새로운 발견이 아닐까 합니다.
- ③ 아픈 자리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길……. 마음 속 상처들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마음은 화사한 꽃밭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 ④ 발표를 망치고 얻은 상처 때문에 열심히 발표 연습을 했어요. 박지성 선수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이제는 멀지 않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 ⑤ 친구를 함부로 대하다 그 친구와 멀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 뒤 아무리 친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아픔이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했어요.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꽂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둉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굽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굽기 깊이 빛깔이다 다르다

- ⑦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 ㉡ 의연하고 의젓하다
- 사군자 종 으뜸답다
-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籍)으로 보이는가
- ⑩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 상처야말로 더 꽂인 것을.

- 「상처가 더 꽂이다」

(나)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오십 리 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장에 오는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짓수도 적고, 말하자면 덤팅풀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⑩ 두 시간쯤 걸으니 흰 뜻 단 배, 누런 뜻 단 배가 점점이 떠 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

구꽃이 만발한 나루,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 채마밭을 끼고 큰길을 또 한 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울어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 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러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 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 든 그는 “어,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쳤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꽂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뜻을 단 배들……. ⑩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群盲)〉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 「사립 학교 자리, 시새움과 책전이 키운 아이들」에서

10. (가)와 (나)의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 고목의 계속되는 고통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② ㉡: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며 고목에 동화된 구경꾼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③ ㉢: 인간과 고목이 살아온 시간을 비교하여 고목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표현한다.
- ④ ㉣: 읍내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나’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 ⑤ ㉤: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기억을 ‘그림’이라고 표현하여 글쓴이의 느낌을 강조한다.

1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과거 회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 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제시한다.
- ㄷ. 어린 시절 겪었던 갈등과 해소 과정을 제시한다.
- ㄹ. 낯섦, 즐거움 등 다양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 ㅁ. 풍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글쓴이의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 ㅂ. 처음 자기 밭로 읍내를 방문한 일, 고모네 집에 가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닌 일 등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ㅂ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ㄹ, ㅁ
- ⑤ ㄱ, ㄴ, ㅁ, ㅂ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오십 리 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장에 오는 책전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짓수도 적고, 말하자면 덤팡물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두 시간쯤 걸으니 흰 빽 단 배, 누런 빽 단 배가 점점이 떠 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 채마밭을 끼고 큰길을 또 한 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밭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 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럭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 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 든 그는 “어,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

어먹었다.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빽을 단 배들…….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群盲)〉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 있다.

– 「사립 학교 자리, 시새움과 책전이 키운 아이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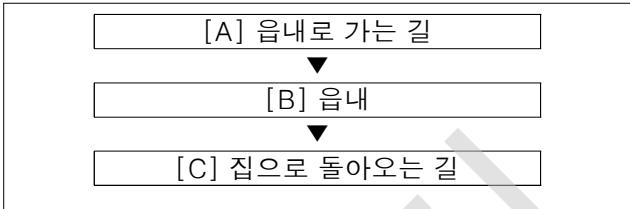
12.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토요일부터 이튿날까지의 시간 흐름이 나타난다.
- ② 낯선 인물과 갈등하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 ③ 집에서부터 고모네 집까지의 공간 이동이 나타난다.
- ④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긴장감을 표현한다.
- ⑤ 인물의 감정이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13. 윗글의 '나'가 경험한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구와 단둘이 책을 사기 위해 읍내에 갔다.
- ② 읍내에서 많은 차들과 즐비한 이층집을 보았다.
- ③ 읍내에 있는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얹어먹었다.
- ④ 읍내 서점에서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샀다.
- ⑤ 읍내를 다녀오며 겪었던 일들과 뇌리에 남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

14. 윗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시간 단위로 읍내 가는 길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낯선 곳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나타나 있다.
- ③ [B]: 새로운 인물에게서 얻은 정보를 통해 처음의 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 ④ [C]: [B]에서 느낀 감정들의 변화 양상이 드러나 있다.
- ⑤ [C]: [A]와 다른 경로로 이동하여 즐거움이 더해지고 있다.

15. 윗글을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일상의 경험에서 아름다움이나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구나.
 - ㄴ. 낯선 곳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두려워하는 친구에게 이 글을 추천하고 싶어.
 - ㄷ.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성공한 뒤의 성취감이 느껴져.
 - ㄹ.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글이야.
 - ㅁ. 집으로 돌아올 때의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풍경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 ①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 화자와 구경꾼들은 꽃이 한창 지고 있는 ‘고목’에 몰려 서 바라보고 있다.
- ② 화자는 동일한 시어가 아닌, 연결 어미 ‘-고’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목의 외양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 ④ 화자가 예찬하고 있는 것은 고목이다.
- ⑤ 화자는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정답 ④

- ⓐ에서는 문장 순서를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④의 원래 문장은 ‘청동의 표면에서 나는 떠난다.’이고, 문장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 ① 비판적 어조가 드러나지만 도치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진리를 나타내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③ 의문 형식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 ⑤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3. 정답 ③

-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는 어구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상처의 향기가 강렬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화자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거무죽죽한 흙’에서 시각적 심상을,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에서 후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와 ‘사백년 고목은 꽂 지느라 한창인데’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시의 비장한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고목’과 ‘구경꾼’들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4. 정답 ③

화자는 ‘나’ 혹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작품 속에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웃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 ①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시의 제목과 ‘상처야말로 더 꽂인 것을’이라는 마지막 행을 통해 주제 의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②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중요하다고 느낀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진물은 얼마나 오래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에서 시인은 ‘고목’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 ⑤ 시인은 시를 통해 고통을 이겨 낸 상처가 성숙하며,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5. 정답 ④

ⓐ에서 화자는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나타내는 역설법을 사용하였다. ④는 의문 형식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이다.

- ① ‘찬란’과 ‘슬픔’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다. 아름다운 슬픔이라는 의미를 찬란하다고 표현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② ‘결별’과 ‘축복’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다. 결별을 통해 얻게 되는 성숙함을 축복이라고 표현한 역설법이다.
- ③ ‘외로운’과 ‘황홀한’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다. 아들을 떠나보내 외롭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모습을 다시 만나 반가운 마음을 황홀하다고 표현한 역설법이다.
- ⑤ ‘괴로웠던’과 ‘행복한’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다. 못에 박혀 고통스럽지만, 인류를 위해 희생한 마음을 행복하다고 표현한 역설법이다.

6. 정답 ③

이 시는 ‘고목’의 외양 묘사와 ‘고목’이 이겨 낸 상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계절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이 시는 ‘고목’, ‘상처’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주먹만큼 굵다란 혹’, ‘거무죽죽한 혹’ 등 시작적 이미지를 통해 ‘고목’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상처야말로 더 끊인 것을.’에서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나며, 주제 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7. [정답] ④

[C]에서 구경꾼들은 고목에 감탄하고 고목을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하며, 향기까지 맡고 있다. 따라서 행동을 중심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① [A]에서 구경꾼들은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주목하고 있다.
- ② 고목의 상처가 현재에만 잠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화자는 고목을 ‘사군자’라 칭하고 있다.
- ⑤ 구경꾼들은 ‘상처’를 훈장이자 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8. [정답] ①

화자는 상처와 고통을 이겨 낸 ‘고목’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고목’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꿋꿋한 태도를 연상하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다.

- ② ‘고목’은 현재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의 상처를 잊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다른 사람들과 배려하고 조화롭게 사는 태도는 ‘고목’에서 연상할 수 없다.
- ④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개혁하고자 하는 태도는 ‘고목’에서 연상할 수 없다.
- ⑤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고목’에서 연상할 수 없다.

9. [정답] ②

화자는 인간과 고목이 살아온 시간을 비교하여 자신이 매화의 상처를 다 헤아리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상처가 주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상처를 견디고 그 자리에 마음속 꽃밭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자신의 삶에서 ‘상처’가 ‘꽃’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아픔을 통해 얻게 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정답] ⑤

집으로 돌아오면서 바라본 풍경들과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을 그림이라고 표현하여 글쓴이의 즐거웠던 느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① 고목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② 구경꾼들이 고목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 ③ 인간과 고목이 살아온 시간을 비교하며 인간이 고목의 상처를 다 헤아리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읍내로 가는 여정을 서술하고 있지만 복잡한 내면 심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11. [정답] ④

ㄱ.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ㄴ. 읍내를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ㄹ. 화자가 느낀 낯섦과 즐거움을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ㅁ. ‘먼지가 폭삭대는 길’,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빛을 단 배들’ 등 자신이 길에서 본 풍경들을 자세히 묘사하여 즐거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ㄷ. 어린 시절,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ㅂ. 처음 자기 밭으로 읍내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고모네 집은 거리가 멀어 가지 못했다.

12. [정답] ①

‘나’는 친구와 토요일에 출발하여 이튿날 다시 돌아왔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낯선 인물과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나’는 고모네 집이 너무 멀어 결국 가지 못했다.
- ④ 윗글에서 친구와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인물의 감정은 낯설과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13. [정답] ⑤

도움을 준 아저씨들과 돌아오면서 본 풍경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느낌을 강조한 것이지 진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다.

- ① ‘나’는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책을 사기 위해 친구와 직접 읍내로 나갔다.
- ②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는 원래 고모네 집에서 자기로 했으나 너무 멀어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
- ④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간 ‘나’는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샀으므로 적절하다.

14. [정답] ⑤

‘나’는 읍내로 갈 때와 돌아올 때 모두 먼지가 많은 길, 노랗고 흰 빽 단 배들을 거쳤다. 따라서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두 시간쯤 걸으니 흰 빽 단 배’,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와 같이 시간 단위로 읍내 가는 길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나’는 읍내에서 겁을 먹고 낯설을 느끼고 있다.
- ③ ‘나’는 식당에서 군청 직원들을 통해 고모네 집이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④ ‘나’는 [B]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C]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15. [정답] ②

- ㄱ. 윗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ㄴ. 글쓴이는 읍내에서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긴장했지만, 돌아올 때는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꼈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두려워하는 친구가 이 글을 읽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ㅁ. 글쓴이는 돌아오면서 바라본 풍경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즐거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ㄷ. 글쓴이는 군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ㄹ. 윗글은 수필로, 글쓴이가 경험한 일을 쓴 글이다. 현실에 있음직한 허구적인 이야기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16. [정답]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다음에는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로,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글쓴이는 읍내에서 처음에는 낯설을 느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즐거움을 느꼈다.
- ③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할 수 있다.
- ④ 글쓴이가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그림’에 비유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군청 직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글쓴이와 글쓴이 친구를 도와주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17. [정답] ①

ㄱ. 글쓴이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 ㄴ. 글쓴이는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을 것이다.
- ㄷ. 글쓴이는 읍내 서점에서 찾던 책을 구매했으므로 목적을 이루었다.
- ㄹ. 글쓴이는 힘들었던 읍내 나들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느꼈던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18. [정답] ①

작품 속 ‘고목’은 사백 년의 상처를 지니며 꾱꼿이 버티고 있다. 이를 통해 고통과 상처가 주는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고목의 상처에서 나는 강렬함을 강조하기 위해 도치법을 사용하였다.
- ③ 향기에 대한 감상을 쓴 것은 아니다.
- ④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대조한 것은 맞지만, 새 생명 탄생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상처를 지니고 있는 고목의 투박스러운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위엄을 이야기하고